

금호타이어 생산라인 도급 직원 투입

100여명 아웃소싱 계획따라 인원 보충

노조 “비정규직 확대” 반발...파업 예고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에 또다시 전원이 감돌고 있다. 사측이 100여명의 아웃소싱 계획에 맞춰 도급사 직원을 채용하면서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생산라인에 외주사 인원 64명이 근무

대(4개조)에 맞춰 16명(1개조)씩 투입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정년 등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108명(정원기준)을 아웃소싱 계획에 맞춰 외주 인원으로 채울 방침이며, 우선 64명의 도급사 직원들을 채용했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임단협시 노조와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올해 1월 외주인원 전환배치 문제를 놓고 노조와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어 회사 인사권을 발동, 이날부터 도급사 직원들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생산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노조는 조합원들의 직무전환 문제가 노사합의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와의 논의과정 중 일방적으로 도급사 직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또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사측의 포석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도급사 인원들이 공장에 근무하는 일 자체가 불법”이라며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이용해 전환배치에 나선만큼 쟁의권을 발동하는 등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5~6일 노조가 특근을 거부해 15%에 달하는 생산차질을 빚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우 안심하고 드세요”

한우 생고기 시식회를 열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9일 농협 구내식당에서 구제역 여파로 소고기 소비량이 줄어드는 등 축산농가의 피해가 확산되자 소고기 소비촉진 행사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값싼 ‘농협폴 주유소’을 400개소로 늘린다

휘발유 ㄹ당 27.31원 저렴

기름값이 연일 치솟는 가운데 4대 정유사보다 가격이 저렴한 NH-OIL(농협폴) 주유소가 올해 대폭 늘어난다.

9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지역 유류가격 안정과 농업인의 유류비 절감을 위해 올해 농협폴 주유소를 광주 2개, 전남 28개 등 총 30개 주유소를 신설해 65개로 늘린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222개소에서 올해 400개소로 80%(178개소) 늘릴 계획이다.

농협폴 주유소는 농협중앙회가 개별 농협주유소의 불량을 모아 공동구매한 뒤 전국에 공급하기 때문에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민간 4대 정유사들 주유소의 가격보다 싸다. 지난달 농협폴주유소의 유류가격은 4대 민간 정유사들 주

유소에 비해 보통휘발유 ㄹ당 27.31원, 자동차용 경유 28.63원, 실내등유 51.31원 각각 저렴했다.

농협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농협폴 주유소를 이용하는 농업인과 지역 소비자들에게 올해 280억원 정도의 직접적인 유류비 절감 혜택이 있으며 지역 유류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간접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은 또 올해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확비료 가격을 평균 16.8%, 농약 가격은 평균 5.7% 인하하기로 했다.

농협은 지난해 맞춤형 비료를 개발해 농가의 화확비료 사용량을 줄이도록 하거나 농약, 유류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화확비료에서 3290억원, 농약 328억원, 유류 140억원 등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줬다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뭐! 기름값 내렸다고?

정유업체 “공급가격 인하” 발표

주유소 업주 “사실과 달라” 발끈

기름값 폭등세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유소업체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공급가 공개에 발끈하고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스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석유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발표하자 주유소업체가 “가격이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하고 있는 것.

정유 4사는 최근 2월 넷째주에 일선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보통 휘발유 공급가격을 전주보다 ㄹ당 4.43~16.97원 오른 1천749.88~1천758.48원으로 인상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일선 주유소업체는 이에 대해 “우리가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은 정유사 발표가격보다 훨씬 높다”며 정유사들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해 마치 주유소업체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역의 한 주유소 사장은 “내가 2월 넷째주에 SK로부터 공급받은 휘발유 가격이 ㄹ당 1천800원이 넘는데 1천749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유사 공급가를 실제로는 낮게 발표해 마치 주유소가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양 호도했다”고 분개했다.

호남지역 한 주유소 사장도 “정유사들이 고유가에 대한 책임을 주유소 쪽에 떠넘기기 위해 일부러 공급가를 낮춰 발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유소 마진은 3%도 안되며 정작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유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체는 “정확히 말하면 주유소 공급가가 아니라 공장 출하가”라며 “정유사가 공개하는 가격에는 ㄹ당 100~150원에 달하는 유통마진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수입 원자재가격

30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수입원자재 가격지수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업협회(KOIMA)가 9일 발표한 2월 수입원자재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코이마(KOIMA)지수는 1월보다 7.26 오른 373.44포인트를 기록해 2008년 8월(411.34) 이래 3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KOIMA지수는 농산물, 광산물, 철강재, 유화원료 등 각 분야의 대표적 수입 원자재 56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56개 품목 가운데 38개의 가격이 상승했고 10개는 하락, 8개는 보합세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수유 강세로 사상 최고가격을 보이고 있는 천연고무(14.21%)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주석(11.75%), 카프로락탐(9.48%) 등도 생산량 감소, 수요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이 올랐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0147 (+5.15)
▼	코스닥지수	522.70 (-2.29)
▼	금리 (국고채 3년)	3.83% (-0.06)
▼	원·달러 환율	1,115.60원 (-2.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삼성, 상반기 대졸사원 4500명 모집

삼성이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4500명을 공개 채용한다.

이인용 삼성그룹 커뮤니케이션팀장(부사장)은 9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자장단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부터 삼성의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 지원자 접수가 시작된다”며 “올해 전체 2만5000명, 대졸 9000명을 뽑는데, 상반기에 대졸사원 4500명 정도를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이어 “30대 그룹 중에서 삼성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 전형없이 공채를 진행한다”며 “작년에는 인턴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이 삼성직무적성검사와 SSAT에 응시했고,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해 열린 채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삼성 공채의 경우 전국 4년

제 220여개 대학 가운데 169개 대학 출신이 응시해 100개대 출신이 합격했고,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대 출신 비율은 28%에 달한다고 이 부사장은 설명했다. 여성 비율은 26%다. /연합뉴스

이종구 수협회장 전남대서

2200만원 수산장학금 전달

이종구 수협중앙회장이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해양수산분야 전공 학생 가운데 성적 우수자 11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총 2200만원의 수산장학금을 전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중소 서비스 연구개발’ 100억 투입

중기청 참여 업체 모집

중소기업청은 업체들의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할 중소기업들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업체당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서비스 혁신과제’와 ‘산업보안과제’로 구분된다.

서비스혁신과제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과 이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신기술 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업체들은 72개의 지정된 항목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자유롭게 과제를 정해

응모할 수 있다.

산업보안과제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을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선정업체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및 각 지방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을 거쳐 6월경 최종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1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홈페이지(www.smtch.go.kr)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기존의 습기제거 기능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light(자외선)를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개모르게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